"여수 박람회장 사후 활용 에너지연구센터 유치해야"

박람회유치기념 학술대회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사후 활용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에너지 연구센터 설립,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운용 등 기후변화 관련 시설 유치 및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수시와 (사)한국물류학회 공동주최로 최근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열린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전남대 경상학부 박병인(물류학 전공) 교수 등 연구팀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시설활용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박 교수팀은 세계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여수를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여수브랜딩' 작업을 서둘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박람회장에 엑스포 주제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에너지 연구센터 등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관련 시설을 유치해야 사후 활용까지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람회 유치 과정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여수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각국의 지지를 받은 만큼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관련 시설 유치는 박람회 성공 개최와 사후 활용에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기후변화 관련 시설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태양력이나 풍력 등 바이오에너지를 연구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지속가능에너지 연구센터를 비롯해 박람회장 일대를 순회하는 유람선이나 각종 이동 수단도 석유가 아닌 태양력·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토록 하는 시스템 등을 통칭한다.

연구팀은 또 사후 활용 보완 방안으로 국제적인 해양 레저포트 건설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여수와 일본의 나가사키, 시모노세키 직항로를 연결하고 어업·관광이 복합된 테마관광, 농어촌 전통주거 체험시설인 민가형 콘도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또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여수에 시급히 필요한 문화인프라로 근대 여수발전 모습을 보여줄 미술관과 종합문화예술센터 기능의 공연장, 지역유물 전시를 위한 박물관 등을 꼽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6·15 남북공동선언 8주년

15일 광주시 광산구 쌍암공원에서 '6·15 공동선언 8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열린 '6.15㎞ 걸기대회'에 1천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환호성을 울리며 출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자영업 소득 증가율↓…3년만에 최저

자영업주도 9만여명 줄어

지난해 자영업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소득 증가율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경기둔화가 진행되면서 내수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도소매·음식숙박업·음식점 등 자영업의 소득 정체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여주는 자영업자 영업잉여는 83조2천700억원으로 전년(82조5천250억원)에 비해 0.9% 증가하는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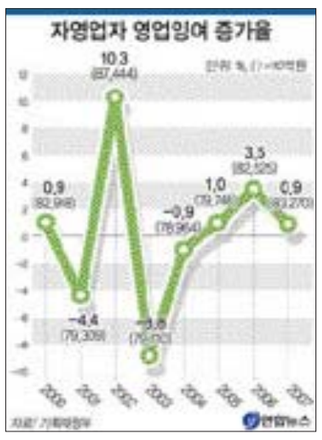
전년 대비 자영업자 영업잉여는 2003년 -8.8%, 2004년 -0.9% 등으로 감소하다가 2005년 1.0%, 2006년 3.5% 등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2007년에는 증가폭이 작아졌다.

자영업자 영여잉여 규모는 2002년 87조4천440억원, 2003년 79조7천100억원, 2004년 78조9천640억원, 2005년 79조7천460억원, 2006년 82조5천250억원, 2007년 83조2천7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영업잉여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지난해 국민소득 중에서 임금 소득과 자영업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조정 노동소득 분배율은 74.0%로 전년(74.4%)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2003년 74.6%, 2004년 72.6%, 2005년 73.9%, 2006년 74.4%, 2007년 74.0% 등이었다.

지난해 자영업자 소득 증가율이 낮았던 것은 계속된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자영업 일자리 자체가 감소하고 있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벌이 또한 시원치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종업원을 두고 자신의 사업을 하는 고용주와 종업원 없이 자신의 사업을 하는 자영자를 합친 자영업주(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604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8만5천300명 정도 줄었다. /연합뉴스



"버스 감축운행 내달 15일까지 유보"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운임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16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버스 감축 운행을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간 유보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연합회는 전날 열린 비상총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가 버스요금 조정과 재정 지원 확대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다 국민의 경제 활동에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빛나만평

- 김종두

'대운하'는 있어야 겠어

전남도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전남도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쇠고기 음식점 특별단속에 나선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17일~2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은 도와 일선 시·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 합동으로 300㎡이상 규모의 도내 구이용 쇠고기 음식점을 집중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 여부 ▲표시된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사실 여부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고 있는 생육 및 양념육 수거검사 ▲원재료 보관 적정 여부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이다.

단속결과 식육의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업소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 등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22일부터는 100㎡ 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조리한 쇠고기, 쌀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며 12월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김치류도 메뉴판 등에 원산지와 종류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경제 지표 대폭 하향

유가 급등·내수 둔화 정부 전망치 재검토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일자리 창출 규모, 무역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의 전망치를 대폭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5일 국제유가 급등, 내수경기 둔화 등 최근의 경제동향을 감안해 올해 3월에 발표했던 주요 경제지표의 전망치를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정된 전망치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반영해 다음 달초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올해 주요 경제지표의 전망치를 경제성장률 6% 내외, 취업자 증가 35만 명 내외, 소비자물가 상승률 3.3% 내외, 경상수지 70억 달러 내외의 적자로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는 7%의 성장률을 공약했지만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해지자 지난 3월 성장률 전망치를 6% 내외로 한 차례 낮췄다. 하지만 여건이 악화되자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6%도 어렵다"며 전망치 재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미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0%에서 각각 4.7%와 4.9%로 내렸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5.0%에서 4.8%로 하향 조정했다. /연합뉴스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기업 법인세 공제

與, 인센티브 제공 검토

한나라당은 내달로 다가온 비정규직보호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5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지금은 쇠고기 사태를 비롯한 다른 현안에 가려 비정규직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른 것 못지 않게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포함한 여러 비정규직 보호 대책들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내달부터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100~299명의 중소기업까지로 확대되며 내년 7월부터는 지난해 법이 적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한나라당이 검토 중인 안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임금인상의 요인이 생겼을 경우 인상분의 30만원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관련 세법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10인 이하의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그 동안 미납한 금액을 면제해 주고, 가입 후 1년간 보험료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구직·운전·모집·초빙
영업·모임·매입·매매
임대·전세·부동산
이메일: design@kwangju.co.kr
◆광주은행 : 001-107-228160
◆농 협 : 617-01-108334
※예금주:(주)광주일보사
• 직통:(062)227-9600
• FAX:(062)227-9500

산행 안내 광고는 18면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ONY의 모든것
www.119accessories.co.kr
소니광주전시판매장 (062)522-2000

주유소매매
• 화순읍내 국도변 30m×10m코너
• 대지 1,186㎡ 건물 471㎡(케노피포함 2층)
• 탱크 180D/M 4기, 주유기 5기
• 매가 11억5천만원(융자4억1천포함)조정가
☎011-413-6051(주·야)

현대자동차주식회사
HYUNDAI
이 형 일
TEL : 061)334-4100
FAX: 061)334-9010
C.P : 011-9603-0456
남평 대리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DVD.CD 제작전문
상품홍보. 행사. 기념앨범
▷기업,종교,병원,학교등◁
• 광주본사:(062)223-1234~5
• 서울사무소:(02)420-4691
www.dvdq.co.kr
(주)광주사운드

여수 화양지구
낭도 투자최적지
① (현)수산자원보호구역이나 2008년 내에 용도변경 현재용도변경용역중 (돌산청사 관광개발과)
② 2008년말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및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③ 화양면과 낭도의 연육교는 현재 기본설계비 20억 배정 (익산국토관리청)
④ 사도는 보존하고 낭도는 개발(관광과)
⑤ 통일교 (주)일상 에서 화양지구(낭도 포함)를 2015년 완공목표로 1조5천억원 투자개발
① 임야 2,820평 평당 7만원 (1필지)
② 임야 50,970평 평당 5만원 (총8필지)
③ 임야 5,550평 평당 7만원 (2필지)
④ 임야 7,380평 평당 5만원 (1필지)
투자상담 ☎019-641-2000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강경림(630919-2637517)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느단1084
공 고 인:김갑구, 김성태, 김성옥
한정승인수리일:2008. 6. 5
공고기간:2008. 6. 16~2008. 8. 15
연 락 처:광주 북구 두암동 969-1 주공아파트 308-102 김갑구 (010-8811-8888)

With Dreams & Passions, your best partner is SAMWOO
"성장하는 미래로 제 2의 도약을 시작하는 삼우 기공식을 축하드립니다."
경 삼우 율촌사업 기공식 축
프로펠러 / 중공업 / 철강
삼우는 2008년 6월 13일 기공식 첫 삽을 시작으로 율촌사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 끊임없는 개발과 자기노력으로 경쟁우위를 갖춘 삼우의 무한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삼우중공업 주식회사
삼우프로펠러 주식회사
삼우철강 주식회사

삼/우/정/공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우/멤/코
삼/우/중/공/업 주식회사
협력 회사 일동